129
곡성군
GOKSEONG COUNTY

성륜사(聖輪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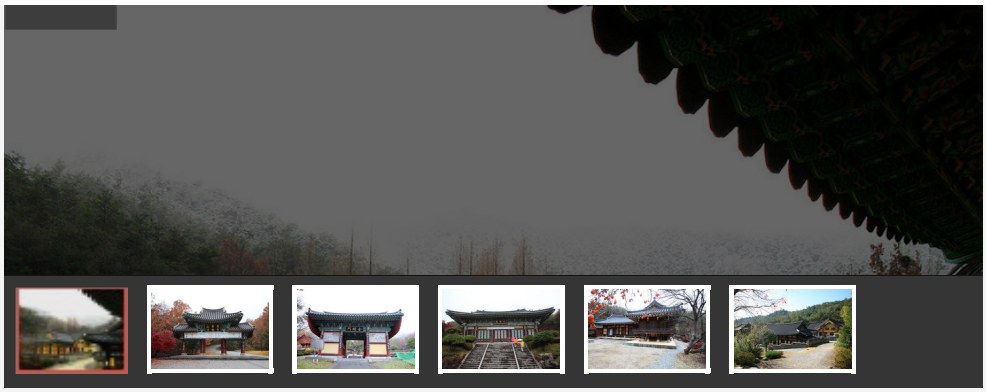
주소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7
전화 061-363-0081
추천 3

이용시간	연중개방
휴무일	연중무휴
이용요금	무료
주차시설	없음
장애인시설	없음

관심여행담기 추천하기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성륜사(聖輪寺)는 옥과의 진산인 설산(雪山)의 남쪽 설령골에 위치하였으며, 1988년 6월4일부터 중창불사 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주변으로 괘일산과 갈산 등이 자리를 잡고, 설산에서 발원한 작은 계곡들이 흘러 안으로 굽은 산세가 성륜사를 외호(外護)하고 있다. 성륜사는 고려시대 사찰이었던'나암사(羅巖寺)'의 맥을 잇는 터에 자리를 잡았다. 나암사는『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에 기록되어 있으며,『동여비고(東輿備考)』옥과현 지도에 나타난 나암사의 위치를 보면 지리적으로 현재 성륜사가 위치한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중기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부터는 사찰이 폐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나, 마을 주민들의 증언으로 현재 성륜사의 자리가 '절골'로 불렸다는 점, 성륜사에서 고려시대 기와와 조선시대 기와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현 성륜사 터에서 법등이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성륜사는 1986년 청화 대종사(淸華 大宗師)와 아산 조방원(雅山 趙邦元) 거사와의 인연으로, 10만평의 땅을 시주 받으면서 중창불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당우로 대웅전, 지장전, 조선당, 육화당, 안심당, 법성당, 설령각, 정운당, 범종각, 적멸보궁 등이 있다. 중창불사 당시 구례군에서 이축했던'안심당'과 '육화당'은 1920년대 전라남도 건축 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난간의 장식, 다락 구조 등의 건축학적 특징으로 현재 근대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조선당'은 청화 대종사가 주석하시던 곳으로, 열반하신 후에는 스님을 기리는 공간으로 남아있다. 조선당 옆으로 청화 대종사의 부도와 비석, 청화 대종사의 은사 스님인'금타 대화상'의 부도가 자리 잡고 있다. 그 밑으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이 자리 잡고 있다. 곡성 성륜사는 나암사의 전통과 청화 대종사가 중창불사한 실상염불선 수행의 맥을 있는 전통사찰이다.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10km이내)

전체 | 관광지 | 음식 | 숙박

성륜사(聖輪寺)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7

061-363-0081

자세히보기 | 관심콘텐츠 담기

성륜사(聖輪寺) :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대중교통길찾기

287

(http://www.gokseong.go.kr/tour)

목록으로

COPYRIGHT ⓒ GOKSEONG-GUN. ALL RIGHTS RESERVED.

Web Contents

곡성군